

코로나19 이후 국제행사 유치 전략 · 방향 논의

전북도, 도내 국제행사 관련 10개 기관과 '국제행사 동향 · 유치사례 공유회' 가져

전북도가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도내 국제행사 관련 10개 기관과 함께,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국제행사 동향 및 유치사례 공유회'를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공유회에는 ▲전북도 국제행사 유치전략과 과제에 대한 발제, ▲전북도 국제행사 유치 방향에 대한 토의, ▲새만금컨벤션센터 현황 및 시설 견학 순으로 이어졌다.

첫 발제로 나선 김현 전북문화관광재단 관광진흥본부장은 "전북은 자연유산, 문화예술, 농생명 등 산업생태계,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 등 국제행사 유치개최에 잠재력과 강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공공과 민간이 함께 하는 전북형 마이스 전담조직 구성, 전북도의 차별화된 유치전략, 주최자도 예측하지 못한 스토리가 있는 행사 기획 등이 향후 추진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공유회에 기관·단체 참석자들은 "딱딱한 회의실을 벗어나 국제행사가 개최되는 컨벤션센터에서 회의



전북도가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도내 국제행사 관련 10개 기관과 함께,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국제행사 동향 및 유치사례 공유회'를 가졌다.

를 개최하고, 시설을 견학하는 현장 중심의 뜻깊은 행사가 됐다"는 총평과 함께, "전북도가 향후 국제행사를 발굴·유치하고, 국제행사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굳건히 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특히,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그동안 제반 여건상 수도권에서 각종 국제행

사를 개최했으나, 향후에는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해 전북지역에서 개최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대답을 내놓으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외에, 전북마이스발달협의회 관계자는 "유네스코 등 NGO단체 및 대학 학회장과 장기적인 네트워크 구

축"을 강조했다.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 관계자는 "도내 지역 자원을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는 유치전략과 지속가능한 이벤트 발굴"을 강조했다.

또한, 하이브리드(온라인+오프라인) 국제행사를 위한 체제 기반 구축 필요, 한상대회 등 재외동포재단에서 추진하는 국제행사 유치 제안 등 다양한 의견이 교환됐다.

한민희 도 대외협력국장은 "2023년 이후 국제행사 유치를 위해 전북연구원 운영, 유치사례 공유회, 부서 내 T/F 운영을 통해 발굴된 국제행사에 대해 유치 타당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유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부터 2023년 세계잡버리대회까지 7년 연속 대규모 행사를 유치·개최해 도민의 자존감 향상 및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내륙도로 등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유호상 기자

국산 김치 사용 업체 인증 제도 실시

전북도, 매년 국산 김치 사용 여부 점검 재인증

전북도가 값싼 수입산 김치가 국내산 김치로 둔갑되는 것을 막고, 중국산 김치의 위생 논란으로부터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산 김치 자율표시제'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국산 김치 자율표시제'는 100% 국산 재료가 들어간 김치를 생산 유통업체로부터 구입하거나, 직접 만들어 손님에게 제공하는 음식점과 급식업소 등에 국산 김치 사용 업체임을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은 대한민국 김치협회, 외식산업협회, 외식업중앙회, 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식협회 등 5개 민간단체로 구성된 '국산 김치 자율표시위원회'에서 서류·현장심사 통

과 시 인증현판을 지원해 주고, 매년 국산 김치 사용 여부를 점검해 재인증할 방침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서와 국산 김치 공급·판매계약서 또는 김치 재료 구매내역, 사진 등 관련 자료를 (사)대한민국김치협회(02-6300-8777~8, 이메일:atrain23@hanmail.net)로 신청하면 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김치 종주국인 우리나라 김치에 대한 소비자 관심과 국산 김치 인증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국산 김치 자율표시제가 국산 김치 소비를 확대하고 소비자 알권리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 금액 확대

전북도는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 예고에 따라,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오는 7월 1일부터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따라,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서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중 차상위분류대상경감대상자인 성인 암환자에 대한 지원금액 한도가 연간 최대 22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확대된다.

특히, 기존에는 급여 본인부담금(최대 120만 원), 비급여부담금(최대 100만 원) 지원한도를 구분했으나, 7월 1일부터는 급여·비급여 구분없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개

편된다.

다만, 건강보험가입자 중 지원 대상 범위가 조정됨에 따라, 국가암검진(6개 암종)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성인 암환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는 7월 1일부터 신규 지원은 중단하되, 올해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신청 후 3년간)이 가능하도록 경과조치를 했다.

고시 제·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2021. 5. 13. ~ 6. 1.) 중 제출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확정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전북 신산업 발전 전략 논의

전북연구원 · 전북테크노파크, 공동세미나 개최

'전북도 신산업지도 변화 의의와 발전방향' 주제

전북연구원(원장 권혁남)과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근의)가 '전북도 신산업지도 변화 의의와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22일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두 개의 세션으로 구분돼 진행됐다.

먼저, 세션1에는 전북연구원의 김시백 박사가 '소부장 특화단지 및 산단 대개조 선점 의의와 향후발전 방안', 이지훈 박사가 '빅데이터융합 전북 신산업의 혁신전략' 등을 발표했다.

세션2에서는 전북테크노파크 이송인 단장이 '전북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에너지산업 발전방안', 이영미 단장이 '전북 바이오헬스산업 현황 및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김시백 박사는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일자리 거점으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북의 노후 산업단지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전북이 지정받은 탄소 소재 중심의 소부장 특화단지와 미래형 상용 모빌리티

중심의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은 향후 데이터 산업, 재생에너지 산업 등과 연계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발굴,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이지훈 박사는 "국가적 ICT 산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가운데 전북은 그간 농생명 SW와 홀로그램 산업을 육성했고, 최근에는 전담부서 및 전담조직의 신설과 SK의 투자로 데이터산업을 전북의 신산업으로 육성시킬 수 있는 동력이 확보됐다"고 평가했다. 향후 과제로 "도시형 데이터 진흥단지" 구축과 전문 인력양성, ICT산업의 수도권 집중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중국 구이저우 사례와 같이 정부 차원의 데이터산업 균형발전정책 도입 등을 제시했다.

세 번째 이송인 단장은 "전북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와 다양한 산업이 융합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라고 평가하며,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비전 달성을 위해 4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상용차, 농기계, 건설기계 등과 연계해 수소생



산과 활용의 동반성장,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지정, 농공단지 및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사회 혁신, 재생에너지 소용 플랫폼 구축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영미 단장은 "전북은 대학병원, 한의대, 간호학과 등의 보건 의료 기반이 잘 갖춰져 있다"며 "농생명 자원을 활용한 의약품, 탄소 및 방사선소재를 활용한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초연구 성과를 활용한 병원과 기업의 중개연구 강화, 산학연병관 인재양성 모델 확립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권혁남 전북연구원장은 "이번 세미

나에서 탄소소재와 첨단모빌리티 기반의 미래형 산업단지, 데이터산업, 재생에너지, 바이오 등 전북 미래에 대해 다양한 분야별 심도 깊은 토론이 이뤄졌다"며 "향후 전북테크노파크와 함께, 전북 산업지도도를 업그레이드할 정책을 구체화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근의 테크노파크원장은 "이번 세미나는 전북연구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첫 번째 행사로 양 기관과 협력 강화의 계기가 될 것이다"며 "향후에도 전북 신산업에 대해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산림 다중이용시설 관리 강화

전북도가 자연휴양림 등 산림휴양·문화시설의 관리 강화에 나섰다.

지난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대부분의 휴양림이 휴장했으나, 올해는 안전 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도내 산림 다중이용시설을 개장할 예정이다.

도는 오는 7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비해 이용객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 준수 여부와 노후 시설물에 대한 전기·소방 등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휴양림 내 수영장, 공동화장실, 취사장 등 다중 이용시설과 침구류의 위생상태 점검을 실시해 최고의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며, 하절기 집중호우와 태풍 등에 의한 자연재해

에 대비해 노후시설을 보수하고, 배수로를 정비하는 등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휴양림의 숙박시설은 2단계까지 전체 운영 가능, 3단계(3/4 운영), 4단계(2/3 운영) 등 단계별로 객실 수의 운영이 가능해진다.

실내관람의 경우 1단계(6㎡당 1명), 2·3단계(6㎡당 1명의 50%), 4단계(6㎡당 1명의 30%), 실외는 모든 시설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족 단위로 방문 및 이용이 이뤄지는 특성상 사전 이용에 관한 홍보, 안내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약 시점부터 관리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